



노동자의 휴식과 삶에
느낌·감동·소식·관심·열정을 주는

글쓰기·사진교실

일시: 2018.10.30(화)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역 교육위원회

금속노조 인천지부(070-7601-7614), 한국지엠지부



목 차

03 진행 순서

04 금속노조가

05 감동과 느낌이 있는 글쓰기

강사 : 안건모 『작은책』 대표

18 세상을 바꾸는 사진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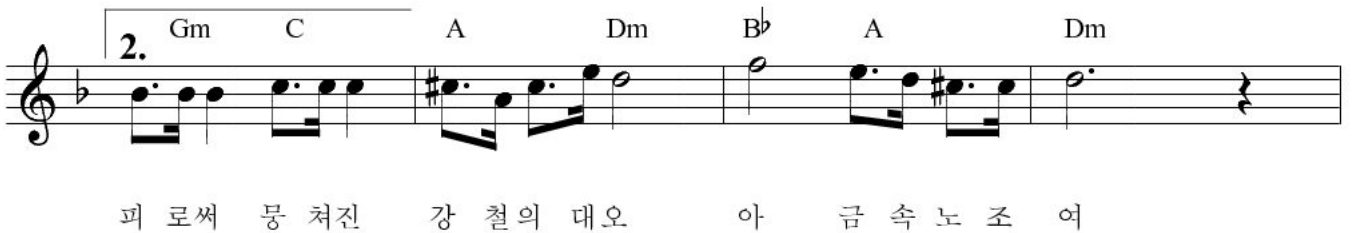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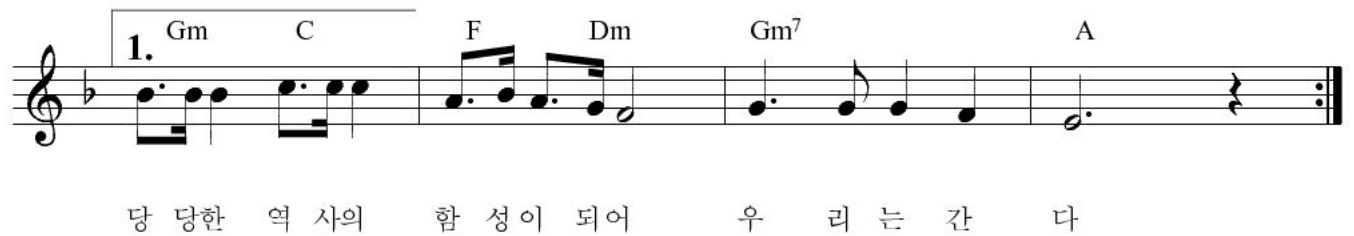
강사 : 변백선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자

진행 순서

일 정	진행내용	강사
14:00~14:10	소개, 참가자 인사	
14:10~16:00	1강 : 감동과 느낌이 있는 글쓰기	안건모 『작은책』 대표
16:00~16:10	휴식	
16:10~18:00	2강 : 사진 어떻게 찍을까	변백선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자
18:00~	저녁식사 및 뒷풀이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1강

감동과 느낌이 있는 글쓰기

안건모 『작은책』 대표

글은 왜 쓰는가

-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
- 억울한 일이나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 자기 의사를 다른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 자기 생각이나 주장, 사상을 다른 이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글은 왜 쓰는가? - 이오덕

한마디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글이 온갖 인쇄물에 실려 나와 엄청난 글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정작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할 사람들은 일만 하다 보니 쓸 틈도 없고, 또 스스로 무식하다는 열등감에 빠져 글을 못 쓴다. 이래서 사회가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 어떻게 할까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문학 글쓰기

시, 소설, 희곡 - 상상력으로 지어낸 허구의 세계

둘째, 실용 글쓰기

신문 기사, 보도자료, 논문, 평론, 보고서, 칼럼, 판결문, 안내문, 사용설명서, 기획서, 수필, 에세이, 일기, 생활글.

문장 쓰기

주어 + 서술어

무엇이 어찌한다 - 철수가 강의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 철수가 잘 생겼다

무엇이 무엇이다 - 철수는 사람이다

주어 서술어가 어울리는가 고쳐 볼 것

내 가슴은 그냥 답답하여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이런 내 처지가 한심한데 어쩔 방도는 없어 눈물만 펴펴 쏟아 내고 말았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만을 조심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위 많은 이웃에게 사실을 알려야 우리 아이가 진정 보호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위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박근혜)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함박 웃는 모습들이 다양했습니다.

박보검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건지 여기저기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을 헤치며 경복궁 안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은 16개 지부 24명의 간부들이 참석하여 선전활동의 교육을 받았다.

문장을 짧게 쓸 것- 다음 문장을 줄여 볼 것.

두 번째로 옮긴 회사가 무리한 확장과 인건비로 힘없이 무너지면서 세 번째로 옮긴 회사는 악덕 기업주를 만나 월급을 몇 달째 밀리기도 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직원들을 무리한 프로젝트에 투입시키면서 IT컨설턴트로써 일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 왔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할 지 다른 것을 배워 직업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고, 교섭결렬에 이어 조정회의, 노사의 입장차이가 커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돌입까지 합법적 파업투쟁이 벌써 35일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시작 첫날 조합원 10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19일 마지막 날에는 육아휴직 중에 소식을 듣고 아기를 업은 채 투표를 하러 온 새내기 엄마 조합원에 가족상을 당했으면서도 투표를 하기 위해 타지에서 부랴부랴 달려온 대의원등 조합원 한분 한분의 높은 참여의식으로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병원의 ‘효율지상주의’가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병원 측에 다시 한 번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이번에도 병원이 이를 외면한다면, 전 조합원 연명의 ‘성명서’ 채택과 언론을 통해 병원과 대학, 재단에 대한 ‘공개질의서’ 게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단 나누기

한 문단 안에는 소주제가 한 가지 - 다음과 같이 시처럼 쓰면 안 된다.

봄이 오면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핍니다.

학교 운동장가에는 목련이 하얗게 핍니다.

마을 앞산 이곳저곳에는 분홍 진달래가 핍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마을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열립니다.

새콤달콤한 자두가 탐스럽게 익어 갑니다.

그리고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과수원에는 달콤한 복숭아가 열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묶어 문단을 나뉘어야 한다. -들여쓰기

봄이 오면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핍니다. 학교 운동장가에는 목련이 하얗게 핍니다. 마을 앞산 이곳저곳에는 분홍 진달래가 핍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마을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열립니다. 새콤달콤한 자두가 탐스럽게 익어 갑니다. 그리고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과수원에는 달콤한 복숭아가 열립니다.

소 주제문 + 뒷받침 문장들

두팔식, 중팔식, 미팔식, 양팔식

나와 남편은 육아, 교육, 식습관, 취미, 성격까지 맞는 게 한 가지도 없다. 나는 10년 넘게 생협을 이용할 정도로 생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편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다. 나는 텔레비전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만 남편은 유용한 오락물을 볼 수 있는 친구로 본다. 나는 혼자 책을 본다든가 호젓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남편은 남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좋아한다. 나는 아이들 장난감은 되도록 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남편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도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나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남편은 아이들의 장점을 크게 보려고 노력한다.

보기글 - 다음 글도 이어 붙여야 한다. 피동태 문장(~되다)도 삼가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는 1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순자위원장이 위원으로 처음으로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연간 908억원의 재정을 책정하여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 현실화를 노리고 있다. 개인정신치료 수가를 10분 단위 5개로 개선하고 장시간 상담치료 수가는 인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약물치료 중심이던 정신과 치료가 상담치료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의 78일간의 파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신과 정책으로 반영되는 첫 번째가 사례가 될 것이다.

❖1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위원으로 처음으로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연간 908억 원의 재정을 책정하여 정신치료 수가 체계를 개편해 수가 현실화를 노리고 있다. 개인정신치료 수가를 10분 단위 5개로 개선하고 장시간 상담치료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약물치료 중심이던 정신과 치료가 상담치료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가 78일 동안 파업해서 정신과 정책으로 반영시킨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통일성 - 주제/소주제와 뒷받침문장의 내용 일치

연결성 - 뒷받침문장들의 자연스런 연결

강조성 - 주제/소주제의 충분한 뒷받침

아래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은 위 아래 문장과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이 될 수도 없다. 한 문단이 되려면 내용을 더 보충해야 한다.

보기글

이번 민주노총의 정책대의원대회는 단기적 사업과 투쟁을 결정하는 통상의 대의원대회와 달리 조직강화, 조직확대, 전략투쟁 등 민주노총의 중장기 혁신전략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상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보내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헌혈수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생명 나눔의 일환으로 적십자본부지부

혈액원 조합원들과 함께 대회장 앞에서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최근 과음을 했거나 피로를 호소하는 대의원들은 헌혈차에 탑승했다가 '거부'를 당해 아쉽게도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날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며 "민주노총 대의원들도 자신의 건강 지키기를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말법으로 쉽게 쓸 것. ‘~통해’를 남발하지 말것

한편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간부들의 선전활동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도 매년 2회에 선전교육을 통해 간부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한편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장에서 간부들의 선전활동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해마다 2회 선전교육을 해서 간부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멋부리지 말라. 주어를 먼저 쓰면 쉽다.

경영 최적화라는 비전으로 익산한방병원을 폐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고 가혹한 추궁이다.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 건강권을 무시당했다는 시민사회단체, 협의 없는 의사 결정에 어이없는 노동조합. 각각의 단체들은 시장과 의회, 지역 정치인을 만났다.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멈추지 않는 원광학원을 향해 노조는 지난 20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라도 우리의 가치에 긍정해 주길 바란다. 그 이전에 원광학원이 먼저 우리를 긍정해주길, 병원과 대학의 질감이 서로 공유되고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밖의 싸움보다 안의 싸움은 더욱 모질고 맹렬한 법이다.

위 글을 아래와 같이 쉽게 고친다.

☛사측은 경영 최적화라는 핑계로 익산한방병원을 폐업으로 몰고 갔다. 우리 노동조합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당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권을 무시당했다. 노동조합과 각 단체들은 시장과 의회, 지역 정치인을 만나 폐업을 막아 보려고 설득했다. 하지만 원광학원은 폐업을 밀어붙였다. 결국 우리 노조는 지난 20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생활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일터이야기 등 짧은 이야기 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
에피소드나 사례가 있는 글

궁극적으로 글 쓰는 이가 팔아야 하는 것은 글의 주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 윌리엄 진서

모든 글쓰기가 자기 노출의 한 형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로버타 진 브라이언트

문단 나누기를 쉽게 하는 방법

가. 시간, 장소, 장면이 다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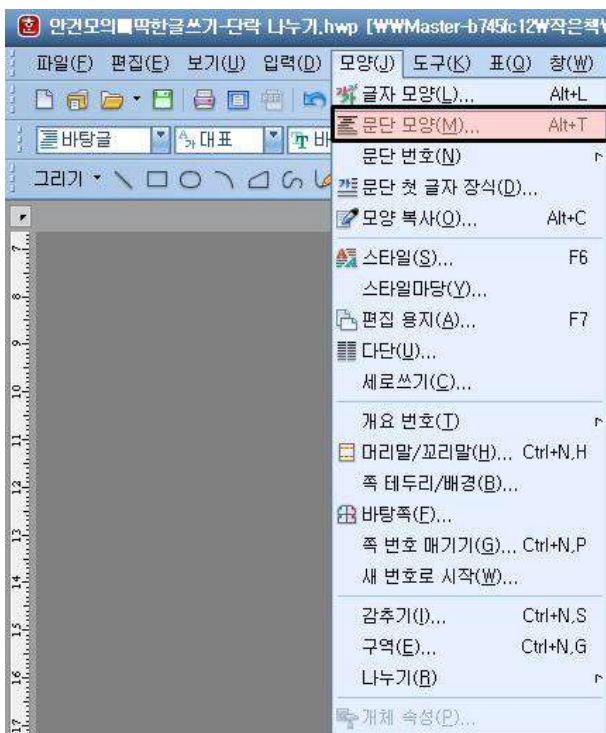
나. 인물, 상태, 동작이 달라질 때

다. 사건, 현상이 달라질 때

라. 서술문에서 대화글로 바뀔 때나 말하는 사람이 바뀔 때

마. 긴 인용문을 넣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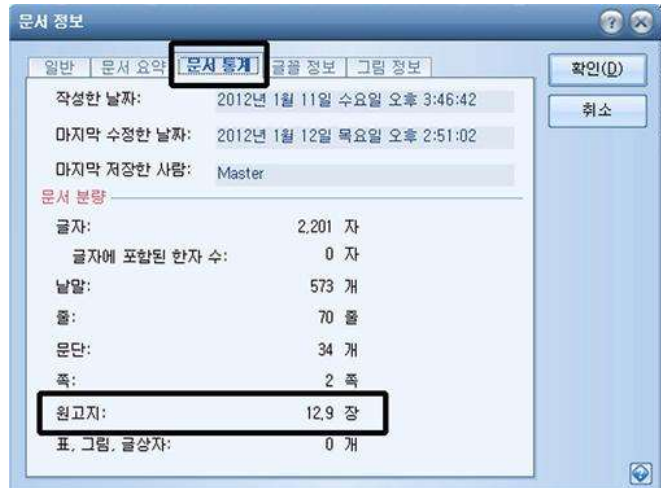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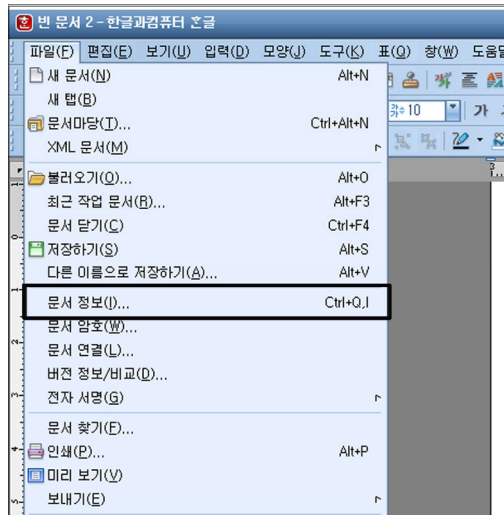
들여쓰기 할 때 미리 설정하기



생활글을 쓰는 스무 가지 방법

1. 솔직하게 나를 드러낸다.
2. 현재형으로 쓸 것인가, 과거형으로 쓸 것인가 정한다.
3. 반말투로 쓸 것인가 존댓투로 쓸 것인가 정한다.
4. 구체적으로 쓴다.
5. 문장을 정확히 쓴다
6. 짧은 문장으로 쓴다.
7. 문단나누기를 정확히 한다
8. 쉬운 우리 말법으로 쓴다 .
9. 입말투로 쓴다.
10. 간결하게 쓴다.
11. 멋 부리지 않는다
12. 피동형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13. '~것 같다' 라는 표현은 자제한다.
14. 설명하지 말고 보여 준다. - 묘사
15. 사례를 든다.
16. 주제에 맞는 내용만 선택한다.
17. 자신의 처지에 맞게 글을 쓴다.
18. 논리에 맞게 쓴다.
19. 다 쓴 뒤에 다른 이에게 평가를 받는다.
20.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고친다.

원고 매수 파악하기



기사 쓰기 – 중요한 것부터 쓰기

남동공단 23살 젊은 노동자가 어떤 보호구도 없이 바가 지로 독성 물질을 다루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습니다. 8.21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끔찍한 화재사고로 무려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7명은 유독가스에 질식한 채 주검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2명은 유독가스를 견디다 못해 일반건물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대형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끔찍한 화재사고로 무려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7명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고, 2명은 유독가스를 견디다 못해 건물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지난 6월, 남동공단에서 23살 젊은 노동자가 어떤 보호구도 없이 바가지로 독성 물질을 다루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보기글. -짜고 치는 고스톱2

안전모

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시내버스 파업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라고 진성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

지난 4월 4일, 시내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했다가 극적 타령, 아니 극적타결을 했단다. 새벽 4시가 타결 시한이라고 했는데 3시 40분에 아슬아슬(?)하게 극적 타결이 났단다.

시내버스 파업! 일반 사업장 파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시내버스는 파업을 하면 회사가 도와준다. 아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사가 "나 파업 안 해!" 하고 차를 끌고 나가려 해도 못 나가게 한다. 회사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다. 지난 97년 3월 오전에 잠깐 했던 파업도 회사에서 배차를 해주지 않고 관리자들이 못 나가게 해서 차 운행을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어땠는가. 파업한다는 전날 4월 3일, 파업출정식이라나 뭐라나. 회사에서는 오전반 기사들보고 거기를 가라고 오후반 기사들을 일찍 출근하게 해서 친절하게 한 탕을 빨리 교대를 시켜주었다. 웃기는 일 아닌가.

사실 시내버스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노총 아래의 30년 어용노조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식을 마비시켜 버렸다. 조합은 다달이 3만 원 정도 되는 조합비를 떼 가고 있지만 그걸 올바르게 쓰는 조합은 없다. 사업장에서 자기 임금을 계산할 줄 아는 조합원이 한두 명밖에 없고 년·월차휴가조차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교육한 적이 없다. 조합원들의 단결을 돕고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노보나 소식지를 내는 조합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런 걸 내려는 조합원이 있으면 나처럼 노조에서 영원히 제명을 당한다.

우리나라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정말 사업하기 쉽다. 어용조합이 “임금 올려 줘!” 하면 사업주들은 정부에 대고 “버스요금 올려 줘!” 하면 되니까. 그럼 정부는? 버스요금을 올리는데 먼저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그래서 시내버스 파업 소동이 벌어지고 ‘극적 타결!’ 타령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도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97년도처럼 슬쩍 몇 시간 정도 버스를 세워 ‘시민들아,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버스가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던가’ 하고 겁을 준다. 이렇게 시내버스 파업소동은 어용조합과 사업주가 짜고 정부가 들러리를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기사도 임금이 오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천만에. 기껏해야 임금 몇 퍼센트 올리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기간에 입사한 조합원은 3개월은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이런 거나 ‘퇴직금 누진제 없다’ 하고 개악시켜 말짱 도루묵을 만들어 왔다. 이번에도 임금 인상 요구율 12.6%에 완전월급제니 아홉 개나 되는 요구 중에서 임금 6.

4%만 달랑 올려주고 끝났다. 그래놓고 정부한테 또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
(2000년 4월) 한겨레

보기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벌써 같은 노래만 열 번쯤을 불렀다. 그제서야 업힌 아이가 잠이 들었는지 특하고 고개가 등에서 떨어졌다. 살며시 오른쪽 어깨를 움직여 아이 머리를 올려놓는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 온다며 보채던 아이가 잠이 들었지만 아직도 저만치 남편 그림자는 보이지가 않았다.

지금 내 등에서 잠이 든 아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면 난 가끔 이렇게 엄마 등에 업혀 엄마와 함께 아빠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때 엄마는 아빠가 초코파이를 사올 거라며 내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러 줬던 것 같다. 그리고 엄마 노래가 서너 곡이 끝날 때쯤이면 정말 어김없이 아버지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옆구리에 끼시고 걸어오셨다. 그리고 엄마보다도 더 넓고 따뜻한 등으로 나를 업어 주시며 조금 전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들려주었다.

아빠 등에서는 아빠 심장 소리도 들렸고 아빠의 따뜻한 체온도 느껴졌고 아빠 냄새도 났다. 엄마와는 다른 아빠 등에서 들려오던 그 노래는 나를 깊은 꿈나라로 보내곤 했다. 어느 날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공주가 되었고 또 어느 날은 날개가 생겨 무지개 위를 날아다니기도 했다.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간. 오늘 밤 내 남편도 내 기억 속 아버지처럼 그렇게 어서 와 아이를 업어 주었으면……. 아니, 그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갈지자걸음을 걸어도 좋으니 얼굴에 웃음 한자락 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며칠 전 남편 작업복을 빨면서 한참을 고생해야 했다. 좋다는 세제는 다 써 봤지만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낡아 해진 바짓단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내일 회사에 가면 작업복 바지 하나를 사라고 돈을 쥐어 주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쯤 남편한테 힘이 빠진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저기, 여보……, 작업복을 살 수가 없다는데…….”

“왜?”

“그게, 난 비정규직이라 살 수가 없다네. 작업복은 정규직만 살 수 있고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나눠 준 그 바지만 입어야 한대……. 그래서 아는 정규직 직원한테 부탁은 했는데 모르겠네…….”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에서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마치 죄인인 양 내 앞에 새로 산 작업복을 내놓으며 바짓단을 줄여 달라고 했다.

남편과 아이가 다 자는 새벽. 남편 작업복을 꺼내 가위로 길이를 잘라 내고 손바느질을 하면서 자꾸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찢어서야 완성할 수가 있었다. 뜨거운 다리미로 곱게 주름 잡아 옷걸이에 걸어 놓고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바지를 바닥에 패대기치고는 발로 밟아 버리고 손으로 비틀기를 몇 번 하고 나서야 내 가슴 속의 무엇인가가 비로소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다시 물을 채운 분무기로 바지 위에 물을 뿌리고 다리미로 주름을 잡으며 생각했다. 하늘 같이 높고 귀한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 1시간이 60분이라면 58분을 잔소리하는 나지만 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남편에게 싫은 소리 가슴 아픈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나는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

“당신은 백 점 만점에 95점짜리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은, “왜 5점은 빼는데…….”

그럼 나는 웃으며 “돈 못 벌어서 오는 거 그게 당신 인생의 오점이지.”

그리고 남편과 나는 배꼽 빠지게 웃는다. 내가 정말 미워서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남편은 너그럽게 철없는 아내의 농담을 가볍게 넘겨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결국 얼마 전 남편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아야 했다. 그 날 밤 힘들게 남편이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어줄 수 있지? 나 당신 굶기지 않아. 알지?”

안다고, 힘들면 그만 회사를 나가라고, 아침 출근하는 남편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 주었다.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의 가슴속 한 칸에 접어 둔 사직서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은 왜였을까?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까? 고작 한 달 월급 80만 원인 박봉이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면 안 될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면 나는 정말 나쁜 아내일까?

이 노래가 멈추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내 노래 소리를 듣고 남편이 빨리 돌아왔으면……. 냉장고 속 꿀물이 얼기 전에 빨리 돌아왔으면……. 저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이 환한 가로등 불빛에 서 있는 나와 아이를 알아봐 줬으면……. 그래서 나는 또 노래를 부른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최영미

2강

세상을 바꾸는 사진 한 장

변백선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자

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



피사체와 초점



사진, 어떻게 찍을까?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변백선 차장
노동과세계 사진기자

사진찍기에 앞서...

Imagine (상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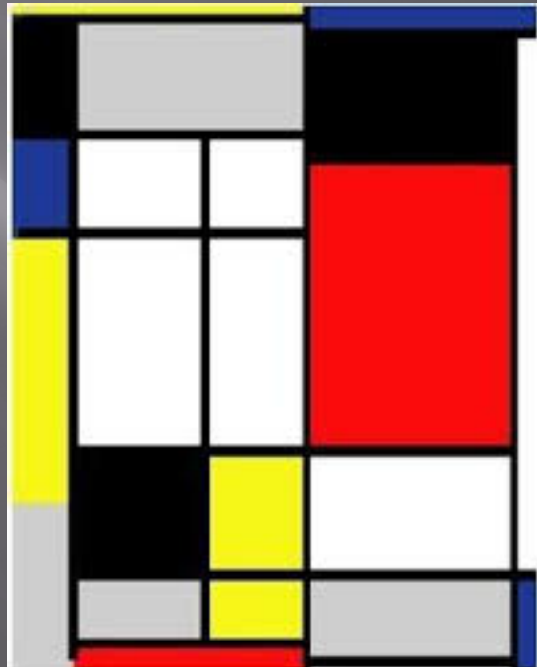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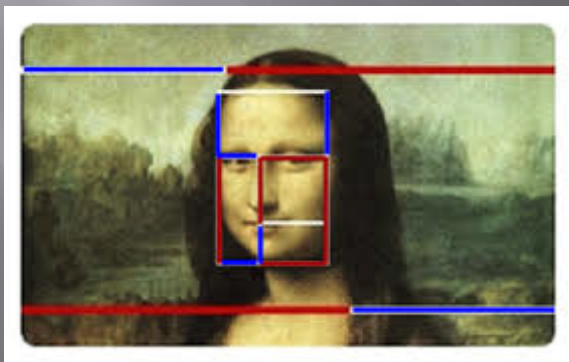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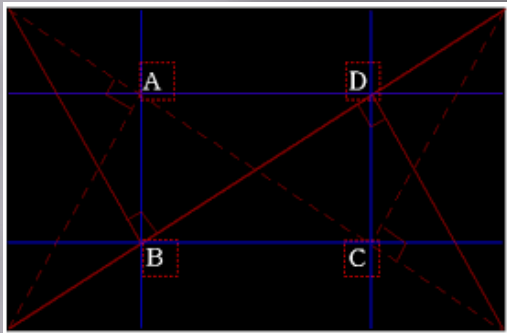
카메라의 종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 ▣ 렌즈 : 16mm, 24, 28/35 / 50 / 85, 105, 135, 200, 500 등
- ▣ 조리개 : f 1.4/ 2/ 2.8 / 4/ 5.6/ 8/ 11/ 16
- ▣ 셔터 속도: B/1/2/4/8/15/30/60/125/250/500/1000
- ▣ 감도 :ISO 50/100/200/400/800/1600/3200/
- ▣ 초점 :FOCUS, DEFOCUS
- ▣ 노출 :노출 감소/적정 노출 / 노출 부족
- ▣ 심도 :DEEP FOCUS – OUT FOCUS
- ▣ 시점 :피사체를 대하는 시선 1 (정면, 뒤쪽, 위아래 등)
- ▣ 프레임: 피사체를 대하는 시선 2
(트리밍, 크로핑, 프레임 좌우,상하, 전후)
- ▣ 광선: 실내, 외부 / 태양(광원)과 피사체/ 인공 조명
- ▣ 질감/톤

구도, 황금분할



구도



주변 정리 (프레임과 배경)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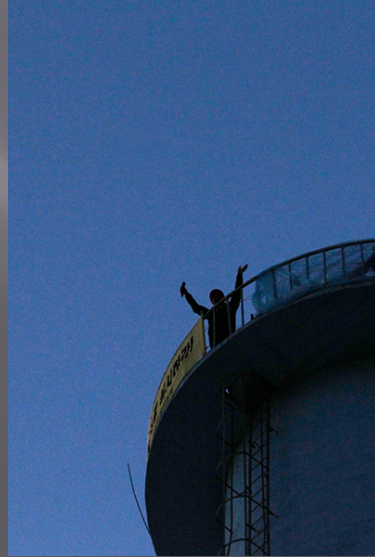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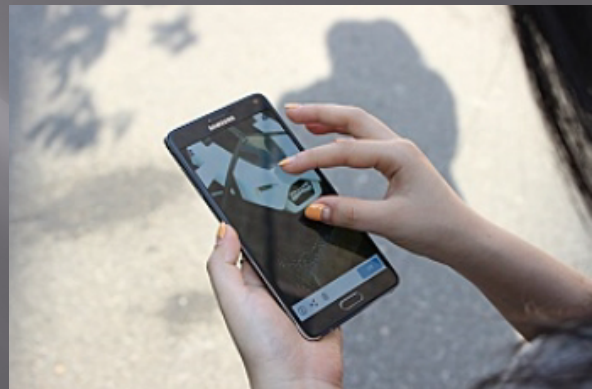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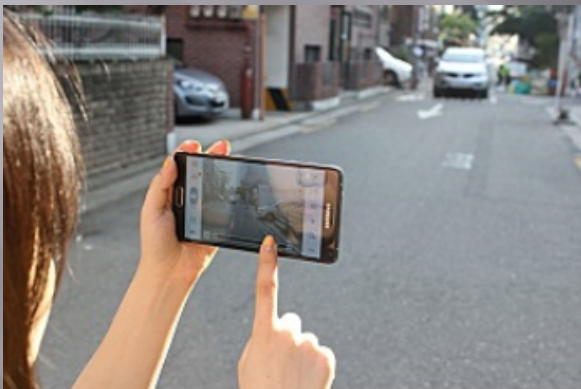
HIGH ANGLE



LOW ANGLE



찍고 바로 확인



좋은 사진 찍는 법 'DIET'



1. Design(디자인)



사진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발생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를 말하고 있다. 위 이미지처럼 2개의 피사체가 있으면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발생한다. 이런 구도선을 볼 줄 알아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2. Information(정보)



정보, 중요한 요소이다. 간혹 이미지 속에 정보를 과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가 과하게 되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산된다.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Emotion(감정)



좋은 사진은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린다. 기쁘고 슬프고 즐거움 같은 감정 등을 일으키는 것이 사진이다. 어떻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진 촬영 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정갈하게 담으면 될 것이다.

4. Timming(타이밍)



사진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잡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관찰과 기다림이다. 그 상황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다가 예상된 또는 예상 밖의 행동이 일어나면 매가 먹이를 잡듯이 카메라를 들어서 찰칵!

마무리 하며...

- ▣ 많이 찍고, 느껴보자!
- ▣ 관찰하고, 가까이 가자!
- ▣ 사진에 스토리를...
(연속사진, 포토스토리, 유형학 등)
- ▣ 사진기자 등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많이 보자!
(효과, 앵글, 구성, 렌즈, 당사 상황 등...)